

양돈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제어 인간법 리인



1. 서언

우리 양돈산업도 이제 하나의 국가산업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돈육소비량 통계를 보면, 1인당 소비량이 '80년의 6.3kg에서 '95년에는 15kg으로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육류소비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5년에는 이미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돈육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득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육류소비량의 증가추세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특히 돈육의 경우는 다양한 요리기술의 개발과 냉장보관 능력의 향상에 따른

그리고 돈육에 대한 선호도 증가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쇠고기값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또한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식품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른 한편 생산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변화를 이룩하였다. 사육두수는 '80년의 178만두에서 '95년에는 646만두로 3.6배의 증가를 나타낸 반면 사육농가수는 '80년의 502천호에서 '95년에 46천호로 오히려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호당 평균사육두수를 '80년의 호당 3.5두에서 '95년의 141두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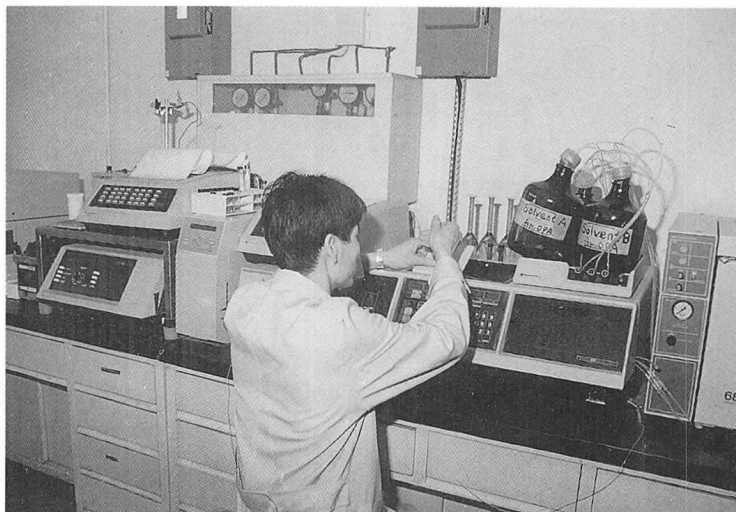


원 광 식 소장
(축산기술연구소)

시커 점점 전업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전업규모로 인정되는 500두 이상 농가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95년에는 3,500호에 이르게 되었으며 10,000두 이상을 공동사육하는 양돈단지도 '95년에는 65개나 되었고, 대규모 양돈기업 및 계열화 양돈사업 경영체의 출현 등은 전문화경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돈산업의 성장은 우리나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 식품의 공급 역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일본 돈육수출까지 도모하여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산업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양돈산업의 발전모습을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종래의 복합경영 형태의 부업축산에서 점차 전문경영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공산품과 같이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생산체제가 됨으로서 공장에서 돼지를 생산해 내는 것처럼 보일 정도가 되었다. 시장 상황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수요의 변화 및 소비자의 기호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생산에 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과 생산능가가 생산은 물론 가공·포장·운송·저장등 유통분야까지도 고려하여야 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변화의 하나



이다.

그러나 양돈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으며 특히 세계의 양돈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신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이 양돈선진국을 향한 중요한 과제

첫째는 WTO체제 출범이후 육류수입이 개방됨으로서 외국 의 돈육과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쟁에서의 우위확보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며 이같은 경쟁력확보를 위한 노력은 육종·번식·영양·사료·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노력은 양돈농가의

전문화·대형화 추세에 부응하여 과학화·첨단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토지면적이 협소한 생산여건임을 고려할 때 두뇌산업적 성격의 과학·기술경영에 바탕을 둔 양돈산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노력에 관한한 지금까지 상당한 진전을 보여왔다고 여겨진다. 최근 축산기술연구소나 양돈협회 및 양돈연구회 등 관련기관에서 주최하는 기술분야 연구 발표회에 대한 양축농가를 비롯한 축산인들의 호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진주산업대학이나 도드람양돈연수원 같은

축산기술훈련기관의 활동도 두드러지며 또한 양돈관련 전문상담연구소의 활동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도 상당히 선진화된 경영을 하고 있는 양돈장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아직도 과학기술영농이 뿌리를 내린상태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개발된 기술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농가의 입장에서는 단지 기술을 받아들이는 노력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기술을 입수할 각오가 되어있지 않다면 지속적인 양돈기술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유럽의 선진 양돈농가를 시찰하고 돌아온 몇몇 양돈농가들로부터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양돈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생산비절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축산현장에 잘 보급되도록 양축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이와 함께 비용을 들여서라도 기대하는 연구결과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양돈농가 전체에 확산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자발적으로 부담하고 이러한 비용을 생산비 항목으로 인정하여 비용효과를 면밀하게 검토·분석하는 양돈경영이 될때 연구개발은 촉진되고 결과적으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분뇨처리는 축산의 앞날을 좌우하는 관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분뇨처리문제이다.

사육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유통과정에서의 위생관리 및 생산비 절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분뇨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산업으로서의 자리를 굳힐 수 없다고 본다. 그것은 수질오염이나 악취 및 파리·모기 등의 해충피해가 발생하는 한 인근주민의 반대를 이겨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뇨처리문제는 우리축산의 앞날을 좌우하는 관건이라고까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분뇨처리에 관한 시험연구는 지난 수년동안 정부의 용역연구사업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시도되어 왔으며, 그 연구결과도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축산시설 및 기자재를 취급하는 기업들도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도 가축분뇨처리를 전공하는 교수 및 연구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대우건설 기술연구소와 같은 재벌기업에서도 가축분뇨처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연구개발이 모두의 결집된 노력으로 계속 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문제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양축농가의 입장에서는 분뇨처리문제를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하지 않고서는 축산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분뇨처리시설 및 기술도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이를 위한 투자에도 과감한 접근이 있어야 양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특별히 강조한다.